



[BTS매력론] BTS의 글로벌 매력 이야기

BTS의 매력과 21세기 신문명

하영선

EAI 이사장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방탄소년단의 매력

2013년 무대에 서기 시작한 방탄소년단(이하 BTS)은 시간이 갈수록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의 영화, 방송, 노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BTS의 인기는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서서 본격적인 질적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전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을 홀리고 있는 BTS 매력의 정체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 우선 매력의 뜻부터 찾아볼 필요가 있다.¹⁾ 매력은 원래 남이 나를 따르게 하는 여러 힘들 중에 하나다. 서양이 근대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이래 힘은 주로 폭력이나 금력의 형태로 상대방 국가나 사람들을 따르게 해왔다. 현대 세계질서의 주도국인 미국은 상대적으로 군사력과 경제력의 쇠퇴를 겪으면서 이러한 강성 권력(hard power)과 함께 문화, 가치, 외교 같은 연성 권력(soft power)의 중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양은 서양에 비해서 훨씬 오래 전인 고대부터 매력이라는 독특한 힘에 관심을 가져왔다. 매력의 원래 뜻은 귀신이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힘이다. 폭력이나 금력이 속마음으로는 내키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따르게 하는 힘이라면, 매력은 귀신에게 홀리듯이 자진해서 상대방을 따르는 힘을 말한다.

BTS가 귀신같이 세상 사람들을 홀리는 매력의 비밀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대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최소한의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한국의 힙합 아이돌인 BTS가 보여주고 있는 혼종성 또는 복합성이다. 그들의 노랫말, 노랫가

락, 그리고 몸짓이 동서고금에서 만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성공적으로 엮어서 전 세계를 매혹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답은 절반의 성공을 말할 뿐이다. 혼종이나 복합이 제대로 되면 순종이나 단순보다 더 끌리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잘못되면 오히려 더 멀리 하게 되고 미울 수 있다.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려면 좋은 재료를 제대로 된 조리법에 따라서 비벼야 한다. 마찬가지로 BTS의 진정한 매력도 단순한 혼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문명의 한계를 고쳐 보려는 21세기 신문명 건축의 전위(avant-garde)로서 보여주는 복합의 아름다움에 있다.

문명과 개화

문명(文明)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밝은(明) 문화(文化)다. 문화는 원래 인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자연에 손을 대서 새롭게 빚어낸 삶의 모습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문명이란 다양한 문화들이 따르게 되는 표준이 된다. 이러한 뜻으로 문명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곳은 동양이 아니라 서양이다. 18세기 중반 프랑스는 처음으로 밝은 문화라는 의미로 civilization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원래 고대 서양에서는 성 밖에 사는 야만인들을 바바바라고 중얼거린다고 해서 바바리언(barbarian)이라고 불렀고, 성 안에 사는 문명인들을 시민(civitas)이라고 불렀던 에서 유래한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프랑스에서는 본격적으로 프랑스와 기조(François Guizot)가 프랑스의 문화가 유럽의 밝은 문화로서 표준이 될만한 문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 영국에서는 헨리 토마스 버클(Henry Thomas Buckle)이 영국사를 문명사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했다. 그러나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 근대적 통일이 늦어졌던 독일은 보편적 문명 대신에 개별적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19세기에 문명(civilization)과 문화(Kultur)의 본격적인 언어 전쟁을 벌였다.²⁾

신문명의 전위로서 BTS의 매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의 civilization 개념이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동양 3국에서 어떻게 문명으로 번역되어 자리잡게 되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일본의 문명개화를 위해 서양의 문화를 새로운 문명 표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처음으로 civilization을 문명으로 번역했다. 그러나, 수 천년 동안 스스로를 천하 질서의 중심으로 생각해 왔던 중국이 유럽 문화를 새로운 문명 표준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까지는 반세기의 세월이 필

요했다. 1840년대의 아편전쟁 이후 1890년대의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배하기까지 중국은 civilization을 문명으로 번역하지 않고 발음대로 시빌라이제이션으로 썼다.³⁾

한국의 유길준은 일본과 중국보다 훨씬 더 어려운 국내외적 여건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썼던 『서유견문(西遊見聞)』에서 동양 전통 질서와 서양 근대 질서에 대한 태도에 따라 개화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⁴⁾

“아무런 분별도 없이 외국의 것이라면 모두 다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라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개화당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어찌 개화당이라. 사실은 개화의 죄인”이라고 부른 다음에, “모자라는 자는 완고한 성품으로 사물을 분별치 못하여, 외국 사람이면 모두 오랑캐라 하고 외국 물건이면 모두 쓸데없는 물건이라 하며, 외국 문자는 천주학이라고 하여 가까이하지도 않는다. 자기 자신만이 천하제일이라고 여기며, 심지어는 피해 사는 자까지도 있다. 이들을 수구당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어찌 수구당이라. 사실은 개화의 원수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개화하는 데는 지나친 자의 폐해가 모자라는 자보다 더 심해서 “입에는 외국 담배를 물고, 가슴에는 외국 시계를 차며, 의자에 걸터앉아 외국 풍속을 이야기하거나 외국 말을 얼마쯤 지껄이는 자가 어찌 개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는 개화의 죄인도 아니고 개화의 원수도 아니다. 개화라는 헛바람에 날려서 마음속에 주견도 없는 한낱 개화의 병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개화의 죄인’, ‘개화의 원수’, ‘개화의 병신’을 넘어서, 동양 전통과 서양 근대의 복합화를 제대로 해야만 문명개화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손님을 거쳐, 주인이 되어 가짜가 아닌 진짜 문명개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유길준은 문명개화의 주인이 되는 꿈을 현실화하지 못했고 조선 왕조는 결국 국망의 비극을 맞이했다.

19세기에 전통 문명과 근대문명의 진정한 복합화에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은 21세기에 다시 한번 근대 문명과 복합 문명의 갈림길을 맞고 있다. 근대 문명은 개별 국가가 핵심 주인공이 되어 군사와 경제 무대를 중심으로 생존을 위한 치열한 힘의 각축을 벌였지만, 예상과 달리 대규모의 세계대전을 겪어야 했고, 경제적 위기와 불평등을 쉽사리 해결하지 못하고, 문화적 갈등이 심화되며, 생태적 어려움을 점점 더 심각하게 겪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복합 문명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개별 국가를 넘어서서 개인부터 초국가 기구까지 모두 참여하는 주인공의 복합화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으로 군사,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생태, 기술, 외교가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 무대가 본격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마지막



으로 경쟁을 기본으로 하고 공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협력에 머무르고 있는 현재의 연기 폭을 대폭 넓히기 위해서, 개체와 전체가 동시에 살 수 있는 자기애와 전체애의 노력을 함께 하는 공생의 복합 연기를 배우기 시작하고 있다.⁵⁾

BTS와 진짜 사랑

BTS는 노랫말, 노래가락, 춤을 통해서 신 복합 문명의 전위로서 세계를 홀리고 있다. 이러한 홀림의 심연 속으로 헤엄쳐 들어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그들이 학교 3부작, 청춘 2부작에 이어 2018년 5월에 발표한 “LOVE YOURSELF” 기승 전결(起承轉結) 시리즈 중에 전(轉) ‘Tear’ 의 타이틀 곡인 ‘FAKE LOVE’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널 위해서라면 난 슬퍼도 기쁜 척 할 수가 있었어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강한 척 할 수가 있었어

사랑이사랑만으로 완벽하길

내 모든 약점들은 다 숨겨 지길

이뤄지지 않는 꿈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키웠어

I'm so sick of this fake love, fake love, fake love

I'm so sorry but it's fake love, fake love, fake love

-BTS 2018 앨범 《LOVE YOURSELF 轉 'Tear'》'Fake Love' 중에서

너를 위해 네가 좋아하는 인형으로 변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기에 좋아할 수 없다는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까지의 사랑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다는 깨달음을 외치고 있다. BTS의 리더 RM은 이러한 심정을 2018년 9월에 열린 유엔아동기금(UNICEF) 행사의 연설에서 보다 자세히 그리고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

“저희 초기 앨범 인트로 중 ‘아훬, 열 살쯤 내 심장은 멈췄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때쯤이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이후 저는 점차 밤하늘과 별들을 올려다보지도 않게 됐고, 쓸데없는 상상



을 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 보다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에 저를 끼워 맞추는데 급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저 스스로도 그랬습니다. 심장은 멈췄고 시선은 닫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는 이름을 잃어버렸고 유명이 되었습니다.”⁶⁾

RM이 소개하고 있듯이 BTS는 이미 2013년에 데뷔 싱글 “2 COOL 4 SKOOL”에 이은 두 번째 음반이자 첫 번째 미니 앨범인 《O!RUL8,2?(Oh! Are you late, too?)》의 인트로에서 ‘왜 나의 인생에서 나는 없고 그저 남의 인생들을 살게 됐어’ 라고 분노하고 있고, ‘N.O’에서 ‘좋은 집 좋은 차 그런 게 행복일 수 있을까..... 더 이상 남의 꿈에 간혀 살지 마’라고 외치고 있다. 2018년의 ‘FAKE LOVE’는 이런 분노를 단호하게 가짜 사랑이라고 부르고 진짜 사랑을 본격적으로 찾아 나서는 분기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BTS는 이어서 모음 음반으로 낸 《LOVE YOURSELF 結Answer》의 대표 곡인 ‘IDOL’에서 가짜 사랑 대신에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 솔직한 대답을 하고 있다.

You can call me artist
You can call me idol
아님 어떤 다른 뭐라 해도
I don't care
I'm proud of it
난 자유롭네

- BTS 2018 앨범 《LOVE YOURSELF 結 ‘Answer’》 ‘IDOL’ 중에서

남들이 나를 예술가, 아이돌, 아니면 다른 뭐로 부르더라도, 나는 더 이상 그런 가짜 사랑에 관심이 없으며, 진짜 사랑은 남의 눈이 아니라 나의 눈에 드는 진짜 자기 사랑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신나게 춤추고 노래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You can't stop me lovin' myself
얼쭈 좋다
You can't stop me lovin' myself



지화자 좋다

- BTS 2018 앨범 《LOVE YOURSELF 結 'Answer'》 'Love Myself' 중에서

같은 모습 음반에 들어 있는 “Love myself” 에서는 진짜 자기 사랑의 뜻을 보다 자세히 밝히고 있다.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라고 말한 다음에, “I’ll show you what i got 두렵진 않아 그건 내 존재니까 Love myself 시작의 처음부터 끝의 마지막까지 해답은 오직 하나.....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I’m learning how to love myself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라고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신의 계시를 깨닫는다는 뜻인 “Epiphany”라는 노래에서는 진짜 자기 사랑의 체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참 이상해

분명 나 너를 너무 사랑했는데

뭐든 너에게 맞추고

널 위해 살고 싶었는데

그럴수록 내 맘속의

폭풍을 견뎌낼 수 없게 돼

웃고 있는 가면 속의

진짜 내 모습을 다 드러내

I’m the one I should love in this world

빛나는 나를 소중한 내 영혼을

이제야 깨달아 so I love me

좀 부족해도 너무 아름다운 걸

I’m the one I should love

흔들리고 두려워도 앞으로 걸어가

폭풍 속에 숨겨뒀던 진짜 너와 만나

왜 난 이렇게



소중한 날 숨겨두고 싶었는지

뭐가 그리 두려워

내 진짜 모습을 숨겼는지

I'm the one I should love in this world”

- BTS 2018 앨범 《LOVE YOURSELF 結 'Answer'》 'Epiphany' 중
에서'

BTS의 진짜 사랑 찾기는 진짜 자기 사랑 찾기에서 출발해서 조심스럽게 사랑의 동심원을 넓혀 나가기 시작한다. 2019년에 발매한 새로운 연작의 첫 번째 앨범 《MAP OF THE SOUL: PERSONA》에 들어 있는 '소우주 (Mikrokosmos)'는 진짜 사랑은 남의 눈에 드는 가짜 자기가 아니라 나의 눈에 드는 진짜 자기 사랑하기와 함께, 진짜 당신 사랑하기를 통한 우리 사랑하기를 동시에 해야 할 것을 조용히 얘기한다. 나는 나대로 하나의 별로 빛나고 너는 너대로 하나의 별로 빛나면서, 우리 70억 모두가 70억의 빛난 별이 되어 칠혹 같은 밤을 함께 서로 밝혀야,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숨을 쉬고 꿈을 꿀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다.

어쩔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또 아름다운 건

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꾀

I got you

칠혹 같던 밤들 속 서로가 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한 사람에 하나의 역사

한 사람에 하나의 별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70억 가지의 world



70억 가지의 삶 도시의 야경은
 어찌면 또 다른 도시의 밤
 각자만의 꿈 let us shine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나
 One

어쩔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또 아름다운 건
 Oh 저 어둠도 달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 BTS 2019 앨범 《MAP OF THE SOUL: PERSONA》 ‘소우주
 (Mikrokosmos)’ 중에서

나는 너의 눈에 들기 위한 가짜 사랑을 넘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자기 눈에 드는 진짜 자기 사랑을 하는 빛나는 별로 새로 태어나는 동시에 70억 개의 진짜 자기 사랑을 하는 다른 별들과 함께 만나 사랑의 동심원을 완성시켜 가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리고 우리도 사는 새로운 사랑의 세계를 맞이한다.

장 자크 루소와 진짜 사랑

BTS가 가짜 사랑을 넘어서 진짜 사랑을 찾아가는 지난 7년의 여정 속에서 부른 200곡 가까운 노래들이 21세기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적으로 매료시키고 있는 것은 현대 문명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예민하게 분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문명 건축을 향한 전위적 노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 미래를 제대로 내다보기 위해서는 근대 문명의 건축 초기인 18세기에 이미 가짜 사랑의 한계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새로운 돌파구로서 진짜 사랑하기를 찾아 나섰던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의 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⁷⁾

루소의 실존적 고민은 진짜 자기 사랑(amour de soi)을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왜 가짜 자기 사랑(amour propre)을 하게 되었는데 가에서 시작된다. 나이 서른이 넘어 뒤늦게 본격적인 파리 생활을 시작한 루소의 눈에 비친 18세기 중반의 파리인들은 모두 내 눈이 아니라 남의 눈에 들기 위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짜 사랑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에게 파리는 가면의 사회였다.

그러나 그가 프랑스 시골을 방랑하면서 만날 수 있었던 농부들은 최소한의 자기 보존을 위한 진짜 자기 사랑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동정심(pitié)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그는 본래 자연 상태의 인간은 농부들처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잘못된 사회상태의 인간은 내면의 가짜 자기 사랑과 외면의 사유 재산의 빈부 격차 같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결합해서 빠르게 타락하여 결국 전쟁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루소는 근대 문명의 핵심 문제인 가짜 사랑과 불평등 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진짜 자기 사랑과 남에 대한 동정심을 먼저 키운 뒤에, 가짜가 아닌 진짜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이성이 살면서 부딪치는 여러 난관들을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외면적으로 불평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전체가 공생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 제도의 개혁을 꿈꾸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꿈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개인에서 시작해서 우주까지 이르는 진짜 사랑의 동심원 확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루소는 진짜 사랑의 확대가 직접적 눈맞춤을 통한 감정 이입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18세기 당시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 사랑의 눈맞춤은 전체 시민들이 모두 직접 눈을 맞출 수 있는 제네바 정도의 작은 도시 국가까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도시 국가를 넘어 선 눈맞춤이 불가능한 속에서, 조국애를 넘어 선 지구애를 싹트게 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

다음으로 근대국가 중심의 단순 국제 질서를 넘어서 개인, 국가, 지구가 공생하는 복합 세계질서를 새롭게 건축하려 해도, 현실 주인공들의 개별 이익을 쉽사리 넘기 어려웠다. 특히 개별 국가 개혁을 위한 조국애가 가짜 자기애의 형태로 잘 못 커지면 커질수록 지구 공생의 제도 개혁을 위한 인류애와는 정면으로 부딪치는 결과를 낳았다.

장 자크 루소와 BTS

BTS의 21세기적 진짜 사랑 찾기 노력은 18세기의 루소가 겪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선 루소가 걱정했던 것처럼 타락한 사회의 인간들이 별이는 가짜 사랑 찾기는 쉽사리 진짜 사랑 찾기라는 새로운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 확대되어 왔다. 그리고 개인과 전체가 공생할 수 있는 제도 개혁도 지난 250년 동안 커다란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따라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치렀으나, 여전히 내전과 핵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빠르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지구적 불평등의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18세기 루소가 괴로워했던 근대 서양 문명의 자기모순은 21세기에 들어서서 보다 심화되어서, 테러로서 상징되는 문화 갈등, 기후 변화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구 감염과 같은 생태 균형의 파괴, 첨단 기술의 혁명적 발전에 따른 기계의 인간 지배 가능성 같은 새로운 숙제를 내놓고 있다.

다만 21세기의 정보 기술 혁명은 18세기에 불가능했던 사랑의 동심원의 지구적 확산을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 상용화가 처음 이루어졌던 인터넷의 사용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대를 맞이해서 이미 전 세계의 절반인 40억 명을 훨씬 넘어섰다. 물질적 공간은 여전히 200여 개 국가로 나뉘져 있지만, 사이버 공간은 지구를 하나로 만들고 있다. 루소 시대에는 불가능했던 지구적 차원의 직접 눈맞춤이 BTS 시대에는 가능하게 됐다. BTS의 성공적 팬덤인 ARMY(이하 아미)는 대표적 성공 사례다

BTS의 21세기는 루소의 18세기에 비해서 근대 문명의 자기모순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감 나게 겪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단순 세계질서를 철실하게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문명 표준으로서 복합 세계질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BTS는 세계 젊은이들에게 가짜 사랑에서 깨어나서 진짜 사랑의 새로운 길로 가자는 메시지를 복합적인 노랫가락, 몸짓과 함께 전함으로써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이다.

그들은 조국애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기애와 우주애의 소중함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근대를 지배해 온 권력과 금력을 넘어서서 새로운 매력의 무대를 찾아 나서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쟁과 협력과 함께 공생의 연기를 통해서 개인과 전체가 함께 사는 복합 질서의 꿈을 꾸고 있다.

BTS의 성공 비결

미국 팝 음악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대중음악 질서 속에서, 상대적으로 변방에 위치해 있는 한국에서 재능은 있지만 무명이었던 시골 출신의 일곱 젊은이들은 처음 무대에 선지 불과 4년 만인 2017년 5월에 아시아 최초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빌보드 뮤직 어워즈(The 2017 Billboard Music Awards)’를 ‘톱 소셜 미디어 아티스트’ 부문에서 수상했다. 오늘의 BTS를 발굴하고 단기간

내에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방시혁은 2018년 6월 KBS TV의 “BTS의 미래와 K-Pop의 미래”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솔직하게 BTS를 처음부터 세계적인 정상 예술인으로 키우겠다는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⁸⁾ 그러나 그들은 예상을 훨씬 뛰어 넘어서 세계 대중 음악 무대의 중심에서 지구적 환영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게 됐다.

방시혁은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부대 행사였던 '문화혁신포럼(Culture Innovation Summit)'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아세안의 성장동력으로서 문화 콘텐츠의 비전에 관한 기조연설을 하면서 BTS의 성공 비결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⁹⁾ 우선, 무엇보다도 전달하려는 내용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아, 이건 내 이야기구나. 우리 시대, 우리 세대에 대한 이야기구나.'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의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가 되는 건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하나의 특수가 보편으로 변화하며 누군가의 영혼을 울리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어서, 지금 시대에는 발언의 보편성만으로는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없으며, 동시에 내용의 전달 방식으로서 특수한 취향 공동체의 열광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21세기는 과거와는 달리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져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취향과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좁고 깊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목을 단숨에 집중시키고 모두를 같은 열광에 빠지게 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어렵다.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취향 공동체의 열광적인 호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정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열광을 통해 존재감을 알리고, 그 열광에 기대 더 큰 성공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의 '좋은 콘텐츠'란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라고 공감할 만한 보편적인 발언이자, 동시에 취향 공동체의 열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발언이기도 해야 합니다.”

BTS의 미래와 21세기 신문명

방시혁이 지적한 대로, BTS는 일단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공감할만한 보편적 발언을 노래하고 춤추면서, 21세기의 첨단 소통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취향 공동체

의 열광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BTS의 매력이 시간이 갈수록 지구 젊은이들을 더욱 깊이 있게 홀리면서, 세계 대중 음악계를 지속적으로 선도하려면, 방탄소년단은 앞으로 훨씬 어렵고 힘든 길을 외롭게 달려야 한다.

첫째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구적 확산과 함께 21세기 문명은 이제까지 세계질서가 몰두해 온 가짜 사랑과 잘못된 이성의 활용을 기반으로 한 경쟁과 갈등을 성찰하면서, 전체애에 기반한 공생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8세기 루소가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자기애와 전체애의 조화 문제를 21세기적으로 풀어서 개인과 인류, 더 나아가서는 모든 생명체가 궁극적으로 풍요롭고 지속적인 생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BTS는 ‘FAKE LOVE’에서 노래한 진짜 자기애와 ‘소우주(microkosmos)’에서 노래한 전체애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21세기 문명의 최대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노래와 춤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구적 확산과 함께 지구 상의 인간들은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첨단 교통, 정보 기술의 혁명과 함께 가속화되던 세계화의 물결은 일단 반세계화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지구화에 익숙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세계화가 아니라 진짜 세계화를 새롭게 추진하는 재세계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환경 속에서 취향 공동체의 열광을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 대면 공간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비대면의 공간이 보다 확대되는 가운데 제2의 이미 탄생은 불가피하다.

BTS가 지난 7년 동안 보여 준 노력은 아직 첫걸음에 불과하다더라도 대단히 소중하다. 한국은 전통 동양 질서와 근대 서양 질서의 오랜 역사 속에서 새로운 문명 표준을 선도하기보다는 수용하고 변용하면서 한국 나름의 문명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1990년대부터 문화적 민족주의에 뿌리를 내리고 태어난 한류(K-wave)는 성장기에 접어든 현재도 아직 소박한 수준의 지구화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BTS의 등장은 한류의 새로운 단계로서 21세기의 새로운 복합 문명 표준 건축에 공동 참여라는 새로운 길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한류의 세계화에 머무르지 않고, 한반도 8천만의 BTS화를 통해서 한반도가 역사 이래 처음으로 21세기 신문명의 건축에 선도적으로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 1) 하영선. 2019. 『사랑의 세계정치:전쟁과 평화』. 379, 453, 474-475. 파주: 한울아카데미.
- 2) 하영선 외. 2009. “근대한국의 문명 개념 도입사.”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파주: 창비.
- 3) Ibid.
- 4) 유길준. 1894. “서유견문.” 『14편 兪吉濬全集』. 서울: 일조각.
하영선. 2011. “제4강 구당 유길준의 삼중 어려움.” 『역사속의 젊은 그들』. 서울: 을유문화사.
- 5) 하영선. 2019. “6강 복합세계정치학”, “10강 꿈의 세계정치학”. 『사랑의 세계정치:전쟁과 평화』. 241-265, 367-409. 파주 : 한울아카데미.
- 6) 방탄소년단 RM. 2019. “유엔아동기금(UNICEF)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Generation unlimited)’ 행사”.
[https://www.unicef.or.kr/news/news_view.asp?idx=87734&cPage=&sKey=&sWord=&sType=l&searchCode=\(검색일: 2020.11.05\)](https://www.unicef.or.kr/news/news_view.asp?idx=87734&cPage=&sKey=&sWord=&sType=l&searchCode=(검색일: 2020.11.05)).
- 7) 하영선. 2019. “1강 복합세계정치학.” 『사랑의 세계정치:전쟁과 평화』. 11-42. 파주 : 한울아카데미.
- 8)방시혁. “방탄소년단과 K-Pop의 미래” KBS TV “명견만리.”
[https://www.youtube.com/watch?v=w6_i7lO4Ads&t=1531s\(검색일: 2020.11.05\)](https://www.youtube.com/watch?v=w6_i7lO4Ads&t=1531s(검색일: 2020.11.05)).
- 9)방시혁. 2019. “4차산업혁명시대 아세안의 성장동력으로서 문화콘텐츠의 비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 '문화혁신포럼 (Culture Innovation Summit)'.
https://www.youtube.com/watch?v=hUzV_ICp_S0 (검색일: 2020.11.05).

■ **저자:** 하영선 EAI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회의 위원과 대통령국가안보자문단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1980-2012)로 재직했으며 미국 프린스턴대학 국제문제연구소와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초청연구원이었다. 최근 저서 및 편저로는 『사랑의 세계정치: 전쟁과 평화』 (2019), 『한국외교사 바로 보기: 전통과 근대』 (2019), 『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 (2017), 『1972 한반도와 주변4강 2014』 (2015),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 (2012), 『북합세계정치론』 (2012), 『역사속의 젊은 그들』 (2011) 등이 있다.

■ **편집:** 전주현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4) jhjun@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0년 12월 23일

[BTS매력론] BTS의 글로벌 매력 이야기

“BTS의 매력과 12세기 신문명” 979-11-6617-078-2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